



SK에너지, 1분기 수출 약진, '글로벌 공략' 가속

SK에너지가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수출물량을 대폭 늘리면서 1분기 사상 최고 수준의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SK에너지는 지난 4월24일 오후 SK서린빌딩에서 열린 2009년 1분기 실적설명회에서 경질유, 아스팔트 등 석유제품 수출 증가와 화학사업 및 석유개발사업 등의 선전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4.2% 하락한 8조 1,053억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61.8% 증가한 6,45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당기순이익은 3,773억원의 환차손에 따른 영업외손실 증가로 전년 동기 수준인 2,470억원에 그쳤다.

석유사업의 경우, 내수시장에서는 제품가격하락 및 수요침체로 인해 전년 동기 보다 판매물량과 금액이 각각 2% 및 25% 감소하는 등 부진을 보였다. 그러나, 고부가가치 제품인 휘발유, 등유, 경유 등 3대 경질유의 수출물량을 2,273만 배럴로 75%까지 늘림으로써 전체 석유제품 수출물량과 금액은 각각 32.6%와 1%가 증가한 3,928만 배럴, 2조 9,227억원을 기록했다.

SK에너지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 공략 및 환율 등의 영향으로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보였지만, 1분기 실적을 월별로 볼 때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고, 호조를 보였던 석유화학사업도 현재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여전히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고, 따라서 시나리오 경영에 따라 신속하고 유연하게 환경 적응력을 높여 경영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위기, 본원적 경쟁력 강화로 극복”



지난 3월 SK에너지의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한 구자영 사장이 지난 4월28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영구상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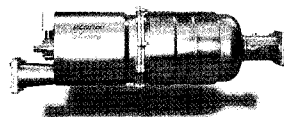
구 사장은 이날 ‘에너지산업과 미래 SK에너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전세계는 에너지 공급 및 확보에 있어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고 강조하고, “SK에너지는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한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이 어려움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위기상황에 대해 구 사장은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와 함께, 지난해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았던 것처럼 향후 수년 내 다시 폭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구 사장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주개발물이 지난해 기준으로 5.7%에 불과하다”면서 “향후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석유자원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에너지 독립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K에너지, 「매연 저감기술」 미국 시장도 인정



SK에너지는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시장에서 매연저감장치(DPF : Diesel Particulate Filter)의 환경

인증을 획득했다고 지난 5월 31일 밝혔다.

이번 환경 인증은 2년여에 걸쳐 심사가 이루어져 미국 캘리포

니아 대기자원위원회의 공식 인증을 획득한 것이다. 미국 환경 인증(CARB)은 스위스의 VERT 인증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환경제품 인증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아시아의 에너지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SK에너지가 취득한 것이다.

SK에너지의 친환경인증 매연저감장치는 자동차에 발생하는 매연의 미세물질(PM)을 90% 이상 제거하는 장치로,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됐으며 올해 3분기에는 미국 현지판매가 가능하고, 2012년까지 미국 시장에서만 연간 1만대 이상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SK에너지 관계자는 “미국으로의 매연저감장치 수출은 단순한 매출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며, “국내 대기오염관리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증명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SK주유소의 환경 사랑 실천을 위한 캠페인”



SK에너지는 지난 4월20일부터 서울 및 수도권, 6대 광역시의 SK주유소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고객들의 평소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엔크린 쿠폰’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SK주유소에서 주유하는 고객은 매 주유시 마다 본인의 패턴에 맞는 엔크린 쿠폰을 주유영수증과 함께 제공 받을 수 있으며, 해당하는 가맹점에서 쿠폰을 제시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SK에너지 관계자는 “경제 위기로 지갑을 닫는 고객을 배려해서 실생활에 필요하고, 평소 즐겨 찾는 OK캐쉬백 가맹점의 쿠폰을 제공하는 등 좀 더 주유 고객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필요한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SK에너지는 지난 4월2일 서울 서린동 SK 본사에서 신현철 부회장과 권병현 한·중문화청소년협회(이하 ‘미래숲’)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한·중우호녹색장성사업’을 위해 후원금 1억5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중우호녹색장성사업은 황사피해 감소 및 사막화 방지를 위해 미래숲과 중국의 공청단(중국공산주의청년단), 내몽고 다라터치 인민정부가 주관하고 SK에너지와 산림청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황사 주발원지인 네이멍구(內蒙古) 쿠부치 사막 지역에 14km²의 방사림(防沙林)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SK에너지는 황사 피해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총 7억 5천만원을 지원해 226만 그루의 방사림 조성사업을 펼쳐 한국기업의 친환경 기업이미지를 높이는 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신현철 부회장은 “황사 피해는 중국과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의 환경 문제”라며, “SK에너지는 앞으로도 환경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SK에너지가 ‘제17회 SK에너지 환경 사랑 어린이 글 모음 잔치’를 5월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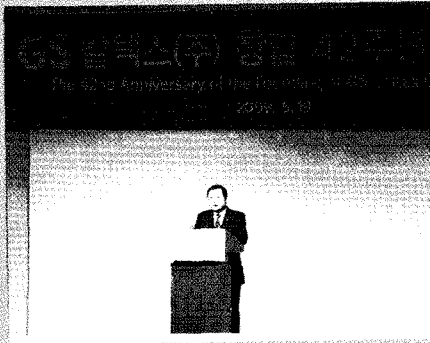
전국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대회 작품 주제는 자연과 생명에 대한 소중함, 나의 환경 사랑 이야기, 자연과 생명에 대한 체험 이야기 등이다.

저학년은 원고지 6장, 고학년은 원고지 10장 안팎으로 작품의 형식은 제한이 없으며, 개인 및 단체로 참여할 수 있다.

우편 접수시에는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24-2 서초 우체국 사서함 36호 제17회 SK에너지 환경 사랑 글 모음 잔치 행사 사무국으로, 홈페이지(green.skenergy.com)를 이용할 경우 응모 게시판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입상자 발표는 오는 7월 15일자 소년한국일보 지면과 SK에너지 홈페이지를 통해 하며, 시상식은 7월 29일 서울 종로구 SK에너지 본사 3층 슈펙스 홀에서 진행된다.

창립 42주년 기념식 거행



GS칼텍스는 지난 5월 18일,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본사 임직원 및 자회사 임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42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허동수 회장은 GS칼텍스의 지난 42년을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했으며, 숭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일산 82만 배럴 규모의 정제능력과 15만 5천 배럴의 고도화시설, 연산 280만 톤의 방향족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품의 절반 이상을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였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우리에게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자력이 있으며,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아시아에서 수익성이 가장 높은 종합에너지 서비스 리더의 비전 달성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자"고 격려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모범사원, 공로사원, 장기근속자 등에 대한 시상과 함께 2008년 중 봉사활동에 참여한 1,702명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실적 인증서도 수여되었다.

한국소비자학회 2009년 소비자대상 수상

GS칼텍스가 국내 정유사로서는 최초로 소비자학회 주관 2009년 소비자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GS칼텍스는 지난 5월 9일 오후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소비자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상을 받고 사례를 발표했다.

한국소비자학회는 국내 소비자학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와 전통을 가진 학회로서 경영학, 소비자학, 심리학, 법학 분야 등 천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소비자학회는 "GS칼텍스가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는 종합에너지 회사로서 소비자에게 기분 좋은 기업으로 다가가려고 펼쳐온 다양한 마케팅 프로그램 및 사회공헌 활동 등을 높이 평가했다"라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제16회 GS칼텍스 환경미술대회 개최

국내 최대규모의 어린이 미술대회인 '제16회 GS칼텍스 환경미술대회'가 지난 5월 10일 서울 올림픽공원 내 88놀이마당과

I am your Energy GS칼텍스 I am your Energy



한일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지난 4월 8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참가를 신청한 전국 6천 명의 초등학생들과 학부모 등 총 2만여 명이 참가하여 그림 솜씨를 마음껏 뽐냈다.

허동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환경을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나라를 녹색 강국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GS칼텍스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에너지, 가장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9 6시그마 그랜드 포럼 개최

GS칼텍스는 지난 4월 23일, 1년간 GS칼텍스의 변화혁신 활동 성과를 결산하는 2009 6시그마 그랜드 포럼을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개최했다.

허동수 회장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변화혁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Cost 경쟁력 확보' 라는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전 임직원이 일상의 모든 업무를 Zero Base에서 재검토하여 낭비와 비효율적 요소를 철저히 제거할 것과 6시그마와 지식경영 등 변화혁신 활동을 일과성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GS칼텍스의 고유한 문화로 내재화시켜 달라고 당부하였다.

노사, 임단협 무교섭 타결

2009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위·수임

2009. 4. 28(화)



GS칼텍스는 지난 4월 28일, 전상호 생산본부장과 박주암 노조 위원장 등 노사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위·수임식을 진행했다.

GS칼텍스 노동조합 박주암 위원장은 이날 "5년째 임금교섭 위임과 첫 단체교섭 위임을 통한 무교섭 타결은 그동안 쌓아온 상호 신뢰와 협력의 생산적 노사관계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히면서 위기 극복에 대한 굳은 마음가짐을 함께 했다.

이에 대해 GS칼텍스 전상호 생산본부장 역시 노동조합이 5년째 임금교섭을 위임하고, 현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단체교섭까지도 위임의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노사가 일치 단결하여 끊임없는 개선을 통해 Cost 경쟁력을 확보하고 무사고·무재해 사업장을 달성함으로써 생산비용을 낮추어 위기 극복에 기여하자"고 강조했다.

GS&POINT 출시 1주년, 500만 회원 돌파

GS칼텍스가 운영 중인 GS그룹의 포인트 통합서비스 GS&POINT가 출시 1주년을 맞아 500만 회원을 돌파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GS&POINT로 골라 담는 1억 장바구니' 행사가 지난 4월 초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GS칼텍스가 GS그룹 주요 계열사와 공동으로 진행한 대규모 고객 사은행사로써, GS칼텍스, GS리테일, GS이숍, 디앤샵의 온라인 이벤트 페이지에서 진행됐다.

응모고객은 GS계열사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상품 중 원하는 상품을 골라 매일 1회씩 장바구니를 채울 수 있게 하였으며, 추첨을 통해 당첨된 1등 1명에게는 고객이 선택한 1억 원 상당의 상품이나 GS&POINT가 제공되었다.

제14회 GS칼텍스 장학금 수여식

GS칼텍스는 지난 4월 8일, '제14회 GS칼텍스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여수지역 중·고·대학생 266명에게 모두 2억 여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GS칼텍스 여수 공장에서 열린 이날 수여식에는 전상호 생산본부장, 김기태 대외협력부부장 등 GS칼텍스 관계자와 전남대 박찬국 부총장, 여수교육청 박성순 교육장 등 여수지역 교육관계자가 참석했다.

한편 이날 장학금은 중학생 199명과 고교생 51명, 그리고 전남대 여수캠퍼스 대학생 16명에게 전달되었으며, GS칼텍스는 이와 별도로 6월중 수산업종사자 자녀 200명에 총 1억 2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S-OIL 노사, 올해 임단협 무교섭 타결



고용 안정을 약속함으로써 전격적으로 이루어 졌다.

이에 대해 S-OIL 관계자는 "S-OIL은 앞선 고도화설비 투자로 국내 정유사 중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온산공장 확장 프로젝트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사 양측 모두가 한 마음으로 S-OIL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겠다는 의미에서 임금 동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S-OIL노사는 지난 4월 2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본사에서 개최된 2009년 임단협 상견례에서 별도의 교섭없이 올해 임금을 동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S-OIL 노사의 임단협 무교섭 타결은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S-OIL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조가 임금 동결, 정가승호분 반납 및 단협 갱신 유보 등을 제외한 데 대해 회사측이 직원들의

그룹홈 어린이 초청 '신나는 영어캠프' 열어



S-OIL은 지난 5월 11일부터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에서 그룹홈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S-OIL과 함께 하는 신나는 영어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S-OIL은 어린이 보호단체인 「Save the Children」과 함께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 수도권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그룹홈 및 보호시설 어린이 200명을 초청했다. 캠프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2박3일 동안 영어캠프에서 함께 생활하며 원어민 영어강사로부터 다양한 영어표현을 습득하였다.

'희귀질환 어린이 지킴이' 로 나서



S-OIL이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밝은 웃음을 찾아주기 위한 지원활동에 나섰다.

S-OIL은 지난 4월 27일 마포구 공덕동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새생명지원센터'에서 아흐메드 에이 수베이 CEO와 김득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방현진 담우회(희귀질환 어린이 부모

모임)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저소득 가정 담도폐쇄증 어린이에게 담도 수술비를 지원하는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들에 대한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S-OIL은 임직원들이 월급여에서 만원 미만의 잔돈을 떼어 모금 중인 급여우수리 모금액에 회사의 기부금을 매칭하는 형태로 약 1억 5천만 원을 조성하여 담도폐쇄증 환자 30명의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수베이 CEO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가 가정에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취지에서 이 행사를 마련했다”며 “희귀질환 어린이들이 의지를 갖고 미래를 향한 꿈을 키워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기입원 어린이들 위한 ‘찾아가는 노란음악회’ 열어



S-OIL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 5월 19일 서울대병원에서 장기입원 어린이들을 위한 S-OIL의 ‘찾아가는 노란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1시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대병원 어린이병동 로비에서 펼쳐진 이번 공연은 오랜 투병생활로 고통받고 있는 장기입원 어린이 환자 및 가족 200여명을 초청하여 타악 그룹 ‘잼스타크’의 코믹한 타악 퍼포먼스와 아카펠라 그룹 ‘보이쳐’의 환상적인 화음을 선사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레크레이션이 함께 진행되었으며, 행사에 참석한 어린이 모두에게 화분을 선물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뇌병변소녀 수술비 500만원 지원

S-OIL은 지난 5월 25일 국가의 의료보호 혜택이 끊어져 딸아이의 뇌병변수술비 등을 못구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모(35, 울산)씨 가정을 돕기 위해 울산무거복지센터를 방문해 병원 수술비로 500만원을 전달했다. 최씨 가족은 뇌병변을 앓고 있는 딸 김양(15)과 단 둘이 살고 있으며 국가기초생활수급 가정이었으나 최씨가 최근 직장을 구해 의료보호혜택이 중단되어 딸아이의 수술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S-OIL 신통열 상무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최씨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수술비를 전달하게 되었다”며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S-OIL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온산공장 '2009 환경보고서' 발간

S-OIL의 환경관리 활동,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2009 환경보고서'가 발간됐다. 환경관리에 대한 대내·외의 정보공개 요구에 부응하고, 환경경영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GRI 가이드라인과 환경부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앞으로 발간할 지속가능성 보고서(SR)에도 기본 자료로 활용되도록 했다.

지난해 1년 동안의 환경경영 시스템 관리, SHEQ(안전보건환경품질) 시스템, 인종현황, 오염물질 배출 현황 등 주요 활동 내역과 성과를 신고 있으며, 분야별 개선활동 실적과 투자·개선 계획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천연기념물 ‘목도 상록수림’ 청소

지난 4월 25일 S-OIL 울산공장 송유부 봉사단 15명이 목도 상록수림(천연기념물 제65호) 환경정화에 나섰다. 목도 상록수림은 울산공장 앞 해안에서 300여 미터 거리에 있는 섬으로, 우리나라 동해안 쪽에 있는 유일한 상록수림이다. 목도 정화활동은 S-OIL의 사회공헌 캠페인 중 천연기념물지킴이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오일뱅크, 45일 동안 사회봉사 릴레이

오는 7월 1일 45주년 창립기념일을 앞두고 있는 현대오일뱅크가 6월18일부터 전국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1600여명의 임직원들 전원이 참여해 45일 동안 봉사활동을 펼치는 '사회봉사 릴레이 45' 캠페인을 전개한다.

봉사활동 시작에 앞서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5월 18일 서울사무소와 충남 대산 공장에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해 45일간의 사회봉사 활동 참여 의지를 다지고 '사회봉사 릴레이 45'의 출발을 선언했다.

현대오일뱅크 소속 임직원은 1개 이상의 사내 봉사팀에 가입해 현재 모두 75개 봉사팀이 구성돼 있다. 이번 45일 간의 캠페인 기간 동안 75개 봉사팀은 근무일과 휴일 가운데 하루를 선택해 45주년 창립기념일인 7월 1일까지 45일 동안 사회봉사활동 릴레이를 펼쳐게 된다.

현대오일뱅크 신방호 부사장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어려운 이웃들의 고통은 커질 것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채워주는 봉사활동으로 모든 임직원들이 창립기념의 의미를 되새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3회 일하기 좋은 기업 大賞 수상



현대오일뱅크가 전국 유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거행된 '2009 한국 최고의 일하기 좋은 기업' 평가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5월 28일 서울 흥은동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열린 '일하기 좋은 기업 대상 운영사무국'이 주관한 평가에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것

한국경제매거진이 주최한 '일하기 좋은 기업 대상'은 기업문화에서 구성원이 느끼는 자부심과 높은 성과 몰입도를 측정하고 기업의 재무와 복지형태, 사회적책임 경영 등을 평가하여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현대오일뱅크는 어려운 대내외적 경영환경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인 책임을 다하고 사내 우수 인재양성에 힘쓰며 생산적 인턴 사원 정규직 채용 등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현대오일뱅크·현대 기아차 그룹 신개념 차량관리 서비스 실시



현대오일뱅크가 국내 최대 자동차 메이커인 현대 기아차와 손잡고 주유소를 최첨단 자동차 관리기지로 탈바꿈 시킨다. 이를 위해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5월 13일, 서울 남대문로 서울사무소에서 현대·기아자동차그룹과 '신개념 무선 차량관리 서비스 제휴 협약식'을 맺었다.

양사가 제휴하는 이번 서비스는 '차량정보 수집 단말기'가 장착된 고객 차량이 「블루투스 송수신 장치(근거리 양방향 무선 네트워크)」가 설치된 현대오일뱅크 계열 주유소를 방문할 경우, 차량 엔진제어장치(ECU)로부터 수집된 고객의 차량 정보가 블루투스 통신으로 곧바로 현대 기아차로 전달돼, 정확한 맞춤형 원격관리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차량 진단, 정비 서비스 안내, 경제운전가이드 및 안전운전가이드 등의 정보를 곧바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현대오일뱅크는 올해 말까지 전국 계열 주유소에 블루투스 송수신 장치(AP)를 설치 완료하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턴사원 20명 선발 완료...오는 6월 29일 현장 배치

현대오일뱅크는 인턴 사원 20명 선발을 마치고 오는 6월 29일에 각 부서별로 현장 배치를 완료한다. 8월21일까지 총 8주간 현장 교육을 받게 되는 이번 인턴 사원 모집에는 약 1,400 여명이 지원해 평균 61대의 경쟁률을 보였다. 사회 전반적인 경기 침체 상황에서 인턴 사원 20명을 채용한 것은 채용 시장에서도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영업, 경영지원, 재무, 수급 트레이딩 등 총 4개 부문에서 선발된 이번 인턴 사원은 각 팀에 1명씩 배정되며 팀내의 멘토와 함께 주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액션러닝을 통한 문제 해결 기법을 습득하는 시간도 갖게 돼 인턴사원들의 현장 체득 교육에 많은 도움을 줄 전망이다. 앞서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9월 생산직 인턴사원 80여명을 선발하여 현장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내 고향 자연사랑 · 문화재사랑 UCC공모전 실시

현대오일뱅크가 환경재단과 함께 고향 땅의 자연과 환경을 사랑하고 내 고향 지역문화재 지키기를 주제로 '제4회 내 고향 자연사랑 · 문화재 사랑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

오는 6월 21일 마감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고향의 자연과 환경사랑을 표현하는 이야기나 환경 지키기 아이디어 또는 동영상 CF △내 고향 지역문화재를 보호하고 가꾸기 위한 이야기,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 문화재의 홍보 동영상 CF 등 고향의 자연과 문화재를 사랑하는 특독 튀는 아이디어나 사랑표현이 담겨 있는 내용이



면 누구나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다. 응모작들은 환경재단과 외부 전문가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작품 11점을 선정, 총 75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시상할 예정이다.

불우이웃 돕기 바자회 개최



사택 부녀회 회원들이 지역 내 불우이웃을 돕고 지역 주민과의 유대도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 21일 오후 3시 사택 체육회관 앞에서 바자회를 열었다. 400여명 이상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행사의 수익금은 전액 대산 공장 인근의 독거노인과 결손 중학생, 고등학교생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2002년부터 매년 실시된 바자회는 지역 사회와 현대오일뱅크 대산 공장간의 관계를 돈독히 해주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노사협력팀 김기문 차장은 "사택 바자회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택 부녀회원들의 마음이 현대오일뱅크 이웃 주민들에게 널리 퍼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